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의 근접 거주가 손자녀 돌봄 및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lose Residence between Aging Parents and Adult Daughters on Grandchild Care and First Births

정보선**

Jeong, Bo Seon

Abstract

This study used a two-stage approach because grandchild care can only be performed after childbirth. The first stage of the analysis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ossibility of real grandchild care and proximity, meeting frequency, and interaction terms using data from KLoSA from 2012 to 2020. The second stage analyzed the effect of proximity approximating grandchild care support expectations on the possibility of the daughter's first birth transition using data from KLoWA between 2012 and 2020. The results of the first stage revealed that intergenerational proximity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randchild care. Meanwhile, the results of the second stage indicate that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first birth increases for women in their 20s and 30s compared with those in their 40s, for women in comfortable economic situations compared with those in difficult economic situations, for women who live in jeonse compared with those who rent, when tenure status improves, and when intergenerational proximity is high or increasing. Conversely,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ing to first birth decreases for those living in homes smaller than 60m² compared with those in homes larger than 85m². Therefore,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adequate housing areas and housing stabilization. In addition, the relative residential position of the fami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grandchild care and the decision to give birth.

Keywords ▶ Intergenerational Proximity, Geographic Proximity, Traveling Time, Fertility

초 록

손자녀 돌봄은 출산 후에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1단계에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12~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와 비동거하는 55세 이상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손자녀 돌봄 가능성과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근접성·만남빈도·상호작용항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후, 분석 2단계에서 여성가족패널조사 2012~202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이력이 없는 가임기간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기대를 근사화한 근접 거주가 성인 딸의 첫 출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세대 간 근접 거주는 손자녀 돌봄 제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2단계 분석 결과 40대에 비해 20대·30대 여성이, 경제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비해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 월세에 비해 전세가, 점유 형태가 상향 이동한 경우, 부모와 딸이 근접 거주하거나 가까워진 경우에는 첫 출산 가능성이 증가한다. 반면 주거 면적이 85m² 초과에 비해 60m² 이하는 그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적절한 주거 면적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족 간의 상대적 주거 위치는 손자녀 돌봄 지원, 출산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단어 ▶ 세대 간 근접성, 지리적 근접성, 이동 시간, 출산력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5274)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강남대학교 강사, 주저자(boseon1022@naver.com)

1.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Total Fertility Rate; TFR)은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에는 1.48명, 2010년에는 1.23명, 2023년에는 0.72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00년대 진입한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²⁾ 이러한 저출산 기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Becker(1981)에 의하면, 개인은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기초하여 출생 시기와 횟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개인은 아이의 출생이 다양한 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Fawcett, 1988), 이러한 예상 비용은 자녀가 부모로 전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efbroer, 2005).

한편, 사회·경제학 연구자들은 종종 (조)부모가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성인 자녀의 출산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Rutigliano, 2020). 즉, (조)부모는 출산에서 비롯되는 육아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 감소를 가져준다는 측면에서 임신과 출산 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Sear and Coall, 2011). 특히, 부모의 시간 이전을 통한 손자녀 돌봄 지원은 성인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출산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Aassve et al., 2012b; Mathews and Sear, 2013; Thomese and Liefbroer, 2013). 일반적으로 조부모는 자녀를 위한 비공식 돌봄의 저렴하고 유연한 주요 공급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Arpino et al., 2014; Fergusson et al., 2008) 손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출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Rutigliano, 2020).

부모로부터 이러한 육아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한 전제 조건은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이다(Pink, 2018). 지리적 거리가 멀수록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연한 보육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Pink, 2018). 또한,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성인인 딸은 어머니가 손자녀 돌봄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다(Pink, 2018). 대개, 딸들은 잠재적 양육자 풀(pool)을 결정할 때 어머니를 크게 고려하는데, 거리가 멀수록 어머니가 양육자 풀(pool)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성인 딸은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유연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덜 갖게 된다(Pink, 2018). 따라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적용하면, 지리적 거리와 기대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Pink, 2018). 결과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와 가까울수록 성인 자녀의 미래 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성인 자녀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출산 성향이 높아진다(Heylen et al., 2012; Pink, 2018).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은 현재 조부모 보육의 가용성을 넘어 보육 지원을 받는 성인 아동의 미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대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다(Rutigliano, 2020).

이에 본 연구는 비용 절감 논거 하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손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성인 딸의 첫 출산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성인 자녀의 부모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조)부모의 보육 제공이 출산 후에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단계는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근접 거주와 조부모의 실제 손자녀 돌봄 제공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후, 2단계는 향후 가용할 수 있는 육아 지원의 기대치이면서 예상되는 육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근접 거주가 딸의 첫 출산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제공을 기대하고 예측하여 부모가 되는 결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Rutigliano, 2020) 성인 자녀의 부모 전환 및 양육 인식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기대 수준에 따라 영향을

1)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 통계청 지표 누리 합계출산율(2024년 12월 검색))

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 통계청 지표 누리 합계출산율(2024년 12월 검색)

받을 수 있다. 결국,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미래에 손자녀 돌봄 지원을 기대하고 가능 여부를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원 기대가 예상되는 출산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Aassve et al., 2012b; Mathews and Sear, 2013; Thomese and Liefbroer, 2013).

이를 통한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 전환하는데 잠재적인 조부모의 보육 제공의 영향과 그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첫 출산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대 간 관계의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1단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와 비동거하는 55세 이상의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단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성가족패널조사(KLoWA)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이력이 없는 가임기간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근접 거주와 손자녀 돌봄, 출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밝힌다. 제Ⅲ장에서 분석 방법, 자료 및 변수들을 설명하고, 제Ⅳ장에서 기술 통계와 분석 결과를 기술한 후, 제Ⅴ장에서 연구의 요약 및 한계와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근접 거주와 손자녀 돌봄에 관한 고찰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조)부모는 다른 친척이나 친구보다 성인 자녀에게 시간, 금전 및 정서적 지원의 형태로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Coall and Hertwig, 2010, 2011; Fergusson et al., 2008; Sear and Coall, 2011). Morgan and Hirosima(1983)는 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사노동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제공은 높은 양육 비용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족 지원 중 특별하고 중요한 형태는 조부모가 제공하는 돌봄이다(Fuller-Thomson and Minkler, 2001; Hayslip and Kaminski, 2005; Pebley and Rudkin, 1999; Vandell et al., 2003). 조부모가 제공하는 보육은 세대 간 교류의

더 넓은 맥락에서 가족 지원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정서적, 경제적 자원을 구성하기 때문이다(Brandon, 2000; Bass and Caro, 1996; Silverstein et al., 2003).

무엇보다도 두 세대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데, 조부모와 성인 자녀는 조부모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가까이 살아야 한다(Compton and Pollak, 2014; Heylen et al., 2012). 선행 연구들에서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조부모로부터 보육 지원을 받을 확률이 지리적 근접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Belsky and Rovine, 1984; Jappens and van Bavel, 2012; Kaptijn et al., 2013; Kügler, 2007; Waynforth, 2012). 부모와 자식 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대면 접촉을 촉진하므로(Grundy and Shelton, 2001; Hank, 2007) 부모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Knijin and Liefbroer, 2006). 특히, 부모와의 근접성은 무료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보다 집중적인 상호 작용을 위한 기회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Compton and Pollak, 2014; Silverstein and Giarrusso, 2010). 비록 그 역할이 보충적인 경향이 있지만, 공공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광범위한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서도 보육에 대한 가족의 기여는 여전히 중요하다(Herlofson and Hagestad, 2012).

2. 근접 거주와 출산에 관한 고찰

최근 연구자들은 출산율과 같은 중요한 인구 통계적 결과에 대한 비거주 가족 네트워크의 역할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Thomas and Dommermuth, 2021), 출산 및 이주 연구자들은 더 넓은 가족 네트워크의 잠재적 관련성을 인식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다(Thomas and Dommermuth, 2021). 특히, 비거주자 가족과의 근접성이 첫 번째 또는 더 높은 순서의 출산으로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연구가 등장했다(Kolk, 2014; Rindfuss et al., 2007). 많은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상당한 양의 보살핌을 제공하는데(Aassve

et al., 2012b; Gauthier, 2002; Mathews and Sear, 2013; Thomese and Liefbroer, 2013) 이러한 지원은 성인 자녀, 특히 딸의 노동력 참여와 출산력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assve et al., 2012a, 2012b; Thomese and Liefbroer, 2013).

조부모의 지원이 성인 자녀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초기 연구는 첫 번째 출산에서 두 번째 출산 또는 그 이후의 출산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assve et al., 2012b; Tanskanen and Rotkirch, 2014; Thomese and Liefbroer, 2013). 아동의 조부모를 통한 비공식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Del Boca, 2002; Hank and Kreyenfeld, 2003).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부모가 되는 전환기에 하면 다음 출산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증가하므로(Margolis and Myrskylä, 2015; Newman, 2008) 조부모 돌봄 제공은 성인 딸의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출산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assve et al., 2012b; Thomese and Liefbroer, 2013). 네덜란드에서도 친족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 돌봄 제공이 추가 출산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ese and Liefbroer, 2013).

손자녀 돌봄 기대와 출산에 관련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자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모가 미래에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이므로 부모는 자녀가 부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상호작용 파트너이다(Keim et al., 2013). Keim et al.(2013)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는 "부모의 지원이 정상적으로 기대된다"라고 답했는데, 그러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것이 출산에 방해가 되고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간주되었다(Keim et al., 2013). 오히려, 그러한 지원에 대한 단순한 기대는 애초에 부모가 되겠다는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ink, 2018). 따라서 기대되는 보육 지원은 그러한 지원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가 되는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결정 시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Keim et al., 2013).

한편, 지리적 근접성이 출산 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 연구도 있지만(Kolk 2014), 독일의 사회경제패널(GSOEP)을 사용한 정량적 연구를 살펴보면, Hank and Kreyenfeld (2003)는 어머니가 15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여성의 출산 전환율이 32% 증가하는 것을 밝혔으며, Thomas and Dommermuth(2021)은 여성의 첫 번째 출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생존분석 추정 결과에서도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어머니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딸이 부모 근처에서 살고 있다면 보육 원천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비공식적 보육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첫 번째 출산을 이행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Hank and Kreyenfeld, 2003). 결국, 부모가 성인 자녀와 가까울수록 손자녀의 양육 지원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성인 자녀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할 경향이 높다(Pink, 2018).

이처럼 향후 이용 가능한 어머니의 육아 지원의 기대에 관한 근사치를 딸까지 이동 거리로 예상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예전에 적용된 적이 있다(Hank and Kreyenfeld, 2003). 그 적합성은 후속 연구들(Pink, 2018; Rutigliano, 2020)에서 검증되었다. 관련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ink(2018)는 독일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족 패널을 이용하여 자녀가 없는 여성 3,155명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어머니의 육아 지원을 어머니와 지리적 거리(이동 시간)로 근사화하여 첫 아이를 낳기로 한 결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Pink(2018)는 1단계로 이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 지원에 대한 기대가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 예상되는 보육과 어머니까지의 이동 거리 사이의 관계는 기대를 확증하므로 근사치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2단계로 어머니와의 거주 거리가 성인 딸이 부모가 되기로 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평균 28세 여성이 첫 아이를 갖기로 결정할 확률은 어머니와 30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경우 5.3%이고, 어머니와 30분 이내 살고 있는 경우 11%로 더 높게 추정되었다(Pink, 2018).

Rutigliano(2020)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의 SHARE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미래 돌봄 제공 수준에 따라 첫 출산 가능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Rutigliano(2020)는 첫 번째 출산 전환에서는 실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미래 손자녀 돌봄 제공에 대한 대리가 필요하므로 2단계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다. 1단계는 실제 조부모의 표본을 사용하여 조부모와 성인 자녀의 특성에 따른 조부모의 실제 손자녀 돌봄 제공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2단계는 조부모의 돌봄 성향이 성인 자녀의 첫 출산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한 결과,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성향은 모든 국가에서 자녀가 부모로 전환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출산과 관련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용성과 그 영향은 유럽에서도 연구되었는데(Gray 2005; Hank and Kreyenfeld 2003), 주목할 점은 고품질의 공식적 육아가 널리 제공되는 노르웨이에서 비거주 가족과의 근접성이 출산 전환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많은 서구 및 아시아 국가에서 관찰되는 출산율의 감소라는 맥락에서 잠재적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Thomas and Dommermuth, 2021).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 관계적 요인으로서 부모와의 근접 거주도 함께 고려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지원, 세대 간 집중적 상호작용 및 장기적 지원의 교환에 대한 잠재력은 출산율을 고르게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수 있다(Thomas and Dommermuth, 2021). 이때,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자녀와 부모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다(Pink,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 연구에서 부모와의 근접성과 출산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 지원의 존재와 주거 위치는 출산 관련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Thomas and Dommermuth, 2021) 근접 거주하는 비동거 가족의 지원은 출산으로의 전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연관성을 밝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데서 연구를 출발하고자 한다.

둘째, 조부모의 돌봄 제공에 대한 기대는 성인 자녀가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Rutigliano, 2020) 그 기대를 근사화하는데 부모와 근접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국외의 선행 연구로 Hank and Kreyenfeld(2003)의 연구는 모두 첫 아이 출생을 종속적 사건으로 사용하고,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근사화하였다. 지리적 근접성은 접촉 빈도, 세대 간 지원의 양, 친밀도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강도를 개념화하는 요인에 대해 좋은 대리 역할을 한다(Kalmijn et al., 2019). 또한, 가족과의 근접성은 더 나은 질의 보살핌, 접촉 및 지원 교환을 촉진하므로(Thomas and Dommermuth, 2021)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접촉 빈도, 근접성과 접촉 빈도의 상호작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III. 분석의 틀

1. 분석모형

분석 모형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 아닌 이분형 변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혹은 로짓 모형(Logi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적용하는 패널 프로빗 모형(Panel probit model)을 설정하였다. 이 때, w_i 를 관찰되지 않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라 하면, 실제로 관찰되는 값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w_i &= 1 \text{ if } w_i^* > 0 \\ w_i &= 0 \text{ if } w_i^* < 0 \end{aligned}$$

즉, $w_i^* > 0$ 이면 $w_i = 1$ 이므로, 1단계 분석에서는 고령 부모 i 가구가 최근 1년 중 10세 미만의 손자녀 돌봄 것으로 관찰되고, 2단계 분석에서는 가임기

간의 성인 여성이 $t-1$ 기 대비 t 기에 첫 번째 출산으로 관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w_i^* < 0$ 이면 $w_i = 0$ 이므로, 1단계 분석에서는 고령 부모가 최근 1년 중 10세 미만의 손자녀 돌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고, 2단계 분석에서는 가임기간의 성인 여성이 $t-1$ 기 대비 t 기에 첫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때, 패널 데이터의 패널 개체 특성들을 반영하여 오차항을 포함하는 1단계 및 2단계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_i^* = \alpha + \beta X_i + \gamma Y_i + \delta Z_i + u_i + \epsilon_i$$

$$w^{t*} = \alpha + \beta X^t + \gamma Y^t + \delta Z^t + u + \epsilon^t$$

여기서 $\Phi(\cdot)$ 이 표준누적 정규분포 함수이며, 1단계 손자녀 돌봄 확률 및 2단계 첫 출산 확률은 다음과 같다.

$$\text{prob}(w_i^* = 1) = \Phi(\alpha + \beta X_i + \gamma Y_i + \delta Z_i + u_i + \epsilon_i)$$

$$\text{prob}(w^{t*} = 1) = \Phi(\alpha + \beta X^{t-1} + \gamma Y^{t-1} + \delta Z^t + \theta W^{t-1} + u + \epsilon^t)$$

이때, 1단계 분석에서 X_i 는 고령 부모 i 가구의 특성이고, Y_i 는 그들의 자녀 특성이고, Z_i 는 고령 부모 i 가구와 자녀 간의 특성이자. 2단계 분석에서 X^{t-1} 는 가임기간 성인 여성의 $t-1$ 기 인구학적 특성이고, Y^{t-1} 는 $t-1$ 의 주거 특성이고, Z^t 는 $t-1$ 기 대비 t 기의 변화 특성이고, W^{t-1} 는 $t-1$ 의 가임기간의 성인 여성과 그 부모 간 특성이자.

2. 분석자료 및 변수

분석의 기초 자료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³⁾와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⁴⁾ 자료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자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⁵⁾를 고령자에게 조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여성가족패널조사도 ‘아버님 혹은 어머님과 얼마나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지’⁶⁾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안점인 세대 간 근접 거주가 손자녀 돌봄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12년(4차)부터 가구주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므로 가구주를 추출하기 위해 4차 자료부터 가장 최근까지 조사된 8차 자료까지 포함하였다. 아울러 일관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도 동일하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2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 출산으로 이행할 때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제공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1단계에서 실제 손자녀 돌봄과 부모 자녀 간 근접 거주와 실제 손자녀 돌봄에 관한 연관성을 살펴본 후, 2단계에서 향후 예상되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부모와 딸 사이의 이동 거리에 대한 측정으로 근사화하여 이용하였다. 즉, 근접 거주를 향후 조부모가 예상되는 손자녀 돌봄 제공의 기대 지표로 이용하여 성인 자녀의 첫 번째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단계 분석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분석 대상은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비동거하는 고령 가구이다. 결측값을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한 가구 수는 2,750가구이며, 관측치는 4,101개이다. 1단계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는 최근 1년 중 10세 미만의 손자녀 돌봄 여부이다. 대개 형제자매, 친구, 이웃은 보육 지원의 원천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Hank et al., 2004), Alt and Teubner(2006)

3)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주기의 기본원칙은 2년 단위로 짝수 년도에 실시하고 있다.

4)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에 1차년도 조사, 2008년에 2차년도 조사한 후, 조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면서 3차년도 조사는 2010년에 조사되었고 2020년에 8차년도 조사하였다.

5)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 ‘비동거 자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의 설문 문항에 대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으로 응답을 구성하여 조사한다.

6)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에게 ‘아버님 혹은 어머님과 얼마나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지’의 설문 문항에 관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차로 걸리는 시간은 일반승용차로 이동할 때를 기준으로 차로 30분 이내 거리,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차로 2시간 이상으로 응답을 구성하여 조사한다.

〈표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관한 변수 정의 및 설명

구분	변수명	단위	적용 모델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손자녀 돌봄	dummy	공통	지난 1년 중 10세 미만 손자녀 돌봄 여부
고령 부모 특성	연령	세	공통	노부모 가구주의 연령
	연령 제공	세	공통	노부모 가구주의 연령 제공
	성별	dummy	공통	고령 부모 가구주의 성별 (남성/여성)
	건강 상태	dummy	공통	일상생활의 주변 도움 필요 여부를 측정하는 ADL, IADL ⁸⁾ 수
	경제활동상태	dummy	공통	고령 부모 가구주의 경제활동 여부(참여/미참여)
	실질 총소득	백만 원	공통	고령 부모 개인의 실질소득과 실질 순자산은 지역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20년 실질 값임.
	실질 순자산	백만 원	공통	
성인 자녀 특성	수도권	dummy	공통	노부모 가구주의 거주지역 (수도권/비수도권)
	연령	세	공통	성인 자녀의 연령
	연령 제공	세	공통	성인 자녀의 연령 제공
	성별	dummy	공통	성인 자녀의 성별 (남성/여성)
세대 간 특성	근로 활동	dummy	공통	성인 자녀 근로 활동 여부
	아이 수	수	공통	성인 자녀의 아이 수
세대 간 특성	근접 거주	dummy	model 1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거주 여부
	근접 거주 * 주 1회 이상 만남	dummy	model 2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거주하면서 주 1회 이상 만남 여부
연도	2020년	dummy	공통	연도 더미
	2018년	dummy	공통	연도 더미
	2016년	dummy	공통	연도 더미
	2014년	dummy	공통	연도 더미
	2012년	dummy	공통	연도 더미(참조변수)

는 아동 돌봄의 34%는 조부모가 참여하고, 5%는 형제자매, 5%는 친구, 3%는 친족으로 훨씬 적게 참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조)부모의 돌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한 변수⁹⁾는 크게 고령 부모 특성, 성인 자녀 특성, 세대 간 특성으로 나뉜다. 먼저 고령 부모 특성에 관한 변수들은 가구주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실질총소득, 실질순자산⁹⁾을 이용하였다. 조부모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는 보육 제공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Aassve et al., 2012b). 어떤 경우에는 조부모가 성인 자녀와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노령으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Rutigliano, 2020) 조부모의 여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돌봄 성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인 자녀 특성에 관한 변수들로는 연령, 성별, 근로활동 여부, 아이 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특성에 관한 변수는 근접 거주 여부¹⁰⁾, 근접 거주와 주

7)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가중치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 기능과 추정의 효율성 향상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김규성 외, 2005). 기본적으로 가중치는 추정량의 비편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여되는데, 경우에 따라 가중치의 산포가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추정량 분산의 증가로 추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김규성 외, 2005).

8)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조사하고 있다. ADL은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척도로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등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측정하며, IADL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척도로 몸단장하기, 식사 준비하기,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등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9)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10) 전국노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비동거 자녀 중 접촉이 많은 비동거 자녀와 걸어서 10분 이내는 6.3%이며, 걸어서 30분 이내는 18.2%이고, 자동차로 30분 이내는 21.5%이다. 즉,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동 시간은 실제 소비 시간을 포착하기 때문에 지오코딩된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미터법 거리보다 우수하므로(Phibbs and Luft, 1995) 본

〈표 2〉 가임기간 성인 여성의 첫 출산에 관한 변수 정의 및 설명

구분	변수명	단위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첫 출산	dummy	t-1기 무자녀에서 t기에 출산한지 여부
인구학적 특성	20대	dummy	여성의 연령이 20세 이상 30세 미만인지 여부
	30대	dummy	여성의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인지 여부
	40대	dummy	여성의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인지 여부 (참조변수)
	건강 상태	dummy	본인의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판단 (나쁨/보통, 좋음)
	혼인 상태	dummy	여성의 혼인 상태(미혼/그 외)
	가구 실질소득	로그값	가구 실질소득은 지역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20년 실질 값의 로그값과 그 제공 값
	가구 실질소득 제공		
경제 상태	dummy	소득, 부채, 자산 등을 고려한 전반적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여유 있음/ 보통, 어려움)	
주거 특성	주거 면적 60㎡ 이하	dummy	주거 면적이 60㎡ 이하인지 여부
	주거 면적 60㎡ 초과 85㎡ 이하	dummy	주거 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지 여부
	주거 면적 85㎡ 초과	dummy	주거 면적이 85㎡ 초과인지 여부 (참조변수)
	자가	dummy	점유 형태가 자가인지 여부
	전세	dummy	점유 형태가 전세인지 여부
	월세	dummy	점유 형태가 월세인지 여부 (참조변수)
	점유 형태 변화	dummy	t-1기 대비 t기의 점유형태가 상향 이동하였는지 여부 (월세→전세·자가, 전세→자가/ 그 외)
세대 간 특성	동거	dummy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동일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근접 거주	dummy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일반승용차로 30분 내 거주하는지 여부
	근접 거주 변화	dummy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t-1기에 일반승용차로 30분 내 거주하지 않다가 t기에 30분 내 거주하는지 여부
연도	2018년 - 2020년	dummy	연도 더미
	2016년 - 2018년	dummy	연도 더미
	2014년 - 2016년	dummy	연도 더미
	2012년 - 2014년	dummy	연도 더미 (참조변수)

1회 이상 만남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다. 조부모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부모와 성인 자녀는 서로 가까이 살아야 하므로(Compton and Pollak, 2014; Heylen et al., 2012) 근접 거주를 고려하였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은 더 빈번한 직접적인 대면 접촉으로 해석되므로(Frankel and DeWit, 1989; Lawton et al., 1994; Hank, 2007) 지리적 근접성 외에 접촉 빈도를 고려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근접성과

접촉 빈도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였다.

자녀 출산과 육아의 영향은 성인이 된 아들보다 성인이 된 딸에게 더 크므로(Benard and Correll, 2010; Liefbroer, 2005)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고자 2단계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출산 이력이 없는 가임기간¹¹⁾의 성인 여성¹²⁾과 여성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 변수는 t-1기에 출산 이력이 없다가 t기에 출산한

연구에서는 근접 거주를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대중교통 내지 자동차로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경우 근접 거주로 정의하였다.
 11) 가임기간은 15세에서 49세까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가임기간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대상의 연령은 20세 이상 49세 미만이다.
 12)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합계출산율(TFR) 산정 시 미혼 여성을 포함한 가임기간 여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KOSIS),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전 출산이나 미혼모의 출산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경우로, 첫 번째 출산 이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측 값을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한 가구 수는 4,320가구이며, 관측치는 9,081개이다.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특성, 주거 특성, 세대 간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변수는 연령대(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건강 상태, 가구 실질소득, 가구 실질소득 제곱, 경제 상태를 이용하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그 가능성이 감소하여(김현식, 2012) 소득과 출산이 역U자 형태의 관계에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김두섭, 2007) 바탕으로 가구 실질소득(로그값)과 그 제곱값도 함께 고려하였다. 주거 특성에 관한 변수는 주거

면적(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점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점유 형태 변화를 고려하였다. 세대 간 특성에 관한 변수는 동거¹³⁾, 근접 거주, 근접 거주 변화를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표 3〉은 1단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다. 지난 1년 중 10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본 고령 부모는 1.5%로 그 비율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2.288세이며, 연령의 분포는 최소 55세에서 최

〈표 3〉 55세 이상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종속변수	손자녀 돌봄	0.015	0.122	0	1
고령 부모 특성	연령	72.288	7.761	55	97
	연령 제곱	5285.766	1126.169	3025	9409
	성별(남성)	0.628	0.483	0	1
	건강 상태(일상생활기능 제한 수)	0.705	2.626	0	17
	경제활동상태(참여)	0.352	0.478	0	1
	실질 총소득	13.746	16.533	0.050	424.6058
	실질 순자산	185.503	249.990	-215.229	3577.713
	수도권	0.318	0.466	0	1
성인 자녀 특성	연령	47.669	8.915	24	78
	연령 제곱	2351.779	869.683	576	6084
	성별(남성)	0.504	0.500	0	1
	근로 활동(유)	0.708	0.455	0	1
	아이 수	1.797	0.836	0	7
세대 간 특성	근접 거주	0.199	0.400	0	1
	근접 거주 * 주 1회 이상 만남	0.104	0.305	0	1
연도	2020년	0.010	0.102	0	1
	2018년	0.014	0.119	0	1
	2016년	0.016	0.125	0	1
	2014년	0.573	0.495	0	1
	2012년	0.386	0.487	0	1
Number of groups		2,750			
Number of observation		4,101			

13) 동거와 주거 면적 60㎡ 이하 간 상관관계는 -0.0059이고, 동거와 주거 면적 60㎡ 초과 85㎡ 이하 간 상관관계는 0.014이며, 동거와 주거 면적 85㎡ 초과 간 상관관계는 -0.010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 9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제곱의 평균은 5285.766세이고, 최솟값은 3025세이고, 최대값은 9409세이다. 남성 고령가구의 비율은 62.8%로 여성 고령가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측정한 ADL, IAL 수의 평균은 0.705개이고, 최솟값은 0개에서 최대값은 17개이다. 현재 경제활동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고령 부모는 35.2%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실질총소득은 13.746백만 원이며, 최솟값은 0.05백만 원이고, 최대값은 424.60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질순자산은 185.503백만 원이고 최솟값은 -215.229백만 원이며, 최대값은 3577.713백만 원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 가구는 31.8%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의 평균 연령은 47.669세이며, 연령의 분포는 최소 24세에서 최대 78세로 나타났다. 연령 제곱의 평균은 2351.779세이고 최솟값은 576세이며 최대값은 6084세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50.4%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활동을 하는 성인 자녀는 70.8%로 과반을 넘는 대부분이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평균 아이 수는 1.797명으로 최솟값은 0명에서 최대값은 7명으로 나타났다.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서 근접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19.9%이고, 부모와 자녀 간 근접 거주하면서 주 1회 이상 만나는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표 4〉는 출산 이력이 없는 가임기간 성인 여성의 첫 출산에 관한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표 4〉 출산력이 없는 가임기간 성인 여성의 첫 출산에 대한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종속변수	첫 출산	0.017	0.128	0	1
인구학적 특성	20대(20세 이상 30세 미만)	0.200	0.400	0	1
	30대(30세 이상 40세 미만)	0.237	0.425	0	1
	40대(40세 이상 50세 미만)	0.563	0.496	0	1
	건강 상태(나쁨)	0.038	0.192	0	1
	혼인 상태(미혼)	0.269	0.444	0	1
	가구 실질소득(로그값)	8.509	0.552	3.916	10.368
	가구 실질소득 제곱(로그값)	72.709	9.061	15.338	107.5007
	경제 상태(여유 있음)	0.114	0.318	0	1
주거 특성	면적 60㎡ 이하	0.994	0.072	0	1
	면적 60㎡ 초과 85㎡ 이하	0.004	0.060	0	1
	면적 85㎡ 초과	0.002	0.039	0	1
	자가	0.738	0.440	0	1
	전세	0.157	0.364	0	1
	월세	0.105	0.307	0	1
	점유 형태 변화(상향 이동)	0.079	0.269	0	1
세대 간 특성	동거	0.262	0.440	0	1
	근접 거주	0.241	0.428	0	1
	근접 거주 변화(30분 초과→이내)	0.066	0.249	0	1
연도	2018년 - 2020년	0.237	0.425	0	1
	2016년 - 2018년	0.241	0.428	0	1
	2014년 - 2016년	0.243	0.429	0	1
	2012년 - 2014년	0.279	0.448	0	1
Number of groups		4,320			
Number of observation		9,081			

이다. 연령대 비율을 살펴보면, 20대(20세 이상 30세 미만) 비율은 20.0%이고, 30대(30세 이상 40세 미만) 비율은 23.7%이고, 40대(40세 이상 50세 미만) 비율은 56.3%이다.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한 경우는 3.8%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20~40대로 젊은 편이므로 적은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 실질소득(로그값)의 평균은 8.508이며 최솟값은 3.916이고 최대값은 10.386으로 나타났다. 가구 실질소득 제공값의 평균은 72.709이고 최솟값은 15.338이며, 최대값은 107.501이다. 소득, 자산과 부채 등을 비교하여 현재 경제 상태가 여유롭다고 판단한 비율은 11.4%로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는 99.4%이고,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는 4%이며, 85㎡ 초과인 경우는 2%로 나타나 대부분이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는 73.8%이고, 전세 15.7%이고, 월세는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기 대비 t기에 점유 형태가 상향 이동한 비율은 7.9%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 부모와 성인 딸이 동거하는 비율은 26.2%이고, 근접 거주하는 비율은 24.1%이며, t-1기에 근접 거주하지 않다가 t기에 근접 거주로 변화한 경우는 6.6%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결과 해석

〈표 5〉와 〈표 6〉의 각 모형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에서는 공통적으로 연도, 고령 부모 특성, 성인 자녀 특성을 고려하되, 모형 1에서 근접 거주 변수를, 모형 2에서 근접 거주와 주 1회 이상 만남의 상호작용항 변수를 각각 투입하여 세대 간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6〉에서 모형 3은 인구학적 특성을, 모형 4는 주거 특성을, 모형 5는 세대 간 특성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연도는 공통적으로 고려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모형에서 Log likelihood 값 및 Wald chi2값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각 모형에서 Prob > chi2값을 살펴보면, 모형 6은 Prob > = 0.0000이므로 유의 수준이 1% 내에

서, 모형 1과 모형 3은 5% 내에서, 모형 2와 모형 4와 모형 5는 10%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제공의 성향을 형성하는 한 요인이다(Rutigliano, 2020).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세대 간 관계와 교류에 더 많이 관여하는데(Choi et al., 2020; Sutor and Pillemer, 2007; Swartz, 2009),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손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이 관여하며, 특히 육아 강도가 높을 때 더욱 그렇다(Hank and Buber, 2009; Wheelock and Jones, 2002). 또한, 어머니가 손자녀 돌봄의 주요 제공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Sear and Coall, 2011),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Kahn et al., 2011). 따라서, 어머니는 성인이 된 딸의 아이를 돌보는데 주요한 제공자로 볼 수 있으므로(Thomese and Liefbroer, 2013) 어머니가 좀 더 가족 관계에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는 은퇴한 (조)부모보다 손자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Rutigliano, 2020).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조부모는 시간 제약이 더 많기 때문이다(Rutigliano, 2020). 따라서, 일하는 조부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조부모에 비해 정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볼 가능성이 낮다(Hank and Buber, 2009). 한편, Van Bavel and De Winter(2013)는 직장에 다니는 조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퇴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조부모가 되는 것이 여성(할머니)의 은퇴를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순자산을 많이 보유한 (조)부모일수록 손자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는 출산에서 비롯되는 손자녀 돌봄, 정서적 지지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제공하는데(Coall and Hertwig, 2010, 2011; Fergusson et al., 2008; Sear and Coall, 2011), 경제적 수준이 높은 (조)부모는 손자녀 돌봄, 가사 지원 등의 시간 이전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오히려 물질적 지원의 금전 이전을 통해 출산·양육 비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55세 이상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관한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모형 1		모형 2	
		coef	z	coef	z
	상수항	-15.844	-1.29	-16.111	-1.31
연도	2020년 (ref. 2012년)	1.015	1.57	0.932	1.42
	2018년 (ref. 2012년)	2.475***	4.75	2.421***	4.58
	2016년 (ref. 2012년)	1.811***	4.48	1.811***	4.44
	2014년 (ref. 2012년)	-0.234	-1.01	-0.229	-0.98
고령 부모 특성	연령	0.060	0.17	0.067	0.19
	연령 제공	0.001	0.20	0.0005	0.18
	성별	-1.262***	-3.57	-1.278***	-3.55
	건강상태(일상생활기능제한 수)	-0.133	-1.09	-0.138	-1.12
	경제활동상태(참여)	-0.733**	-2.55	-0.725**	-2.48
	실질 총소득	-0.004	-1.04	-0.004	-1.03
	실질 순자산	-0.002**	-1.93	-0.002**	-1.99
	수도권	0.184	0.73	0.151	0.59
성인 자녀 특성	연령	0.607*	1.67	0.603	1.62
	연령 제공	-0.011**	-2.34	-0.011**	-2.26
	성별	-0.019	-0.08	-0.005	-0.02
	근로 활동	0.834**	2.29	0.844**	2.28
	아이 수	0.371**	2.38	0.378**	2.41
세대 간 특성	근접 거주(30분 이내)	0.471**	2.01	-	-
	근접 거주 * 주 1회 이상 만남	-	-	0.792***	2.89
Log likelihood		-179.0534		-176.69005	
Wald chi2		47.62		44.97	
Prob > chi		0.0002		0.0004	
Number of groups		2,750			
Number of observation		4,101			

주 : <.01:***, <.05:**, <.10:*

성인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가능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그 가능성이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이행 확률이 높아지나, 일정 연령에 이르면 출산 이행 확률이 감소하는 비선형성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오신휘·장인수, 2021) 출산에 따른 손자녀 돌봄도 유사한 비선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녀에 비해 근로 활동을 하는 자녀에게 (조)부모는 손자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연적으로 근로 활동은 시간 제약을 동반하므로 특히 성인 자녀

의 미취학 아동 양육기에 육아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조)부모가 자녀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손자녀 양육을 주로 맡기도 한다(임병인·강성호, 2022).

자녀의 아이 수가 많을수록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개 아이 수가 많을수록 육아의 강도는 높아지므로 양육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손자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사료된다. Ku et al.(2012)은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는 손자녀 돌봄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 변수로 손자녀 수와 성인 자녀의 결혼상태를 이용하기도 했다.

조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utigliano, 2020). (조)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지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돌봄 가능성은 확실히 감소하며, 특히 정기적인 손주 돌봄 경우에는 더욱 감소한다(Hank and Buber, 2009). 또한, 가까이 거주할수록 왕래빈도가 높은 경향이 뚜렷하며,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가 왕래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노인주거실태조사, 2017) 주 1회 이상의 빈번하고 정기적인 대면 접촉을 하는 부모와 자녀는 친밀도 및 정서적 지지가 높은 관계이므로 자녀가 출산으로 양육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손자녀 돌봄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상호작용항, 즉 부모와 자녀가 근접 거주하면서 주 1회 이상 만나는 경우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연령은 40대에 비해 20대와 30대인 경우 첫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첫 출산 확률이 20대는 5.2%, 30대는 5.6% 증가한다. 여성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여성의 가임 가능 기간과 관련된 요인이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임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송유진, 2014) 출산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본 연구는 첫 번째 출산에 초점을 두고 있어, 40대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첫 출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전반적인 경제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비해 여유롭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이 평균으로 고정되었을 경우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 비해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 첫 출산 확률이 0.7% 증가한다. Easterlin et al.(1980)은 혼인과 출산력 결정에서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Easterlin et al.(1980)의 상대 소득 가설에서 발전시킨 Lutz et al.(2006)은 소비와 출산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절대적인 경제 수준 혹은 구매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절대 빈곤과 같은 열악한 경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소비 여건에 따라 출산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림·이지

혜, 2017). 따라서 절대 소득, 부채, 자산, 소비 여건 등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지만, 여유롭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지 않는 것이다.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상에 비해 60㎡ 이하의 첫 출산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이 평균으로 고정되었을 경우 주거 면적이 85㎡ 이상에 비해 60㎡ 이하의 첫 출산 확률이 5.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스웨덴 도시 지역에서는 방 1개와 주방으로만 구성된 주택 유형이 표준화된 이후 1인당 주거밀도가 낮아져 부부들이 가족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주택규모의 축소로 분석되기도 하였다(Kulu and Vikat, 2007).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규모가 15평 이하일 경우 자녀가 있든 없든 모두 출산을 연기하며, 작은 규모의 주택은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천현숙 외, 2016). 특히, 서울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좁은 주거 면적은 가족 단위의 탈서울 현상을 심화시키며, 신혼부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적당한 크기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다은·서원석, 2021). 따라서, 더 넓은 주택으로 접근성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으며(Peled, 1969; 이삼식, 2013 재인용), 주택규모와 방의 개수가 첫째 출산 의향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Strom, 2010).

점유 형태가 월세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변수들이 평균적으로 고정되었을 경우 월세에 비해 전세 거주는 첫 출산 확률이 0.7% 증가한다. 무자녀 가구는 월세보다 전세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가 있으며(천현숙 외, 2016; 이상림·이지혜, 2017; 이다은·서원석, 2021),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은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낮은 출산 위험률을 보인다(김현식, 2017)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오신휘·장인수(2021)는 둘째 출산 이행까지 전세는 출산 이행에 가장 유리한 점유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해외 임차 형태에 해당하지

<표 6> 출산력이 없는 가임기간 성인 여성의 첫 출산에 관한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모형 3		모형 4		모형 5		
		coef	z	coef	z	coef	z	dy/dx
	상수항	-9.925*	-1.79	-8.667	-1.57	-8.228*	-1.73	
연도	2018-20년 (ref. 2012-14년)	-0.314**	-2.54	-0.291**	-2.34	-0.275**	-2.39	-0.003
	2016-18년 (ref. 2012-14년)	-0.284**	-2.35	-0.263**	-2.15	-0.246**	-2.19	-0.003
	2014-16년 (ref. 2012-14년)	0.121	1.06	0.134	1.13	0.122	1.35	
인구 학적 특성	20대 (ref. 40대)	1.408***	4.45	1.381***	4.28	1.250***	7.38	0.052
	30대 (ref. 40대)	1.509***	4.32	1.496***	4.16	1.351***	9.87	0.056
	건강 상태(나쁨)	-0.130	-0.47	-0.138	-0.49	-0.140	-0.54	
	혼인 상태(미혼)	-0.198	-1.60	-0.141	-1.16	-0.238	-1.34	
	가구 실질소득(로그값)	1.777	1.35	1.722	1.31	1.608	1.39	
	가구 실질소득 제곱(로그값)	-0.117	-1.44	-0.115	-1.41	-0.107	-1.51	
	경제 상태(여유 있음)	0.397**	2.79	0.393**	2.74	0.372***	3.42	0.007
주거 특성	면적 60㎡ 이하 (ref. 면적 85㎡ 초과)			-1.252*	-1.77	-1.084**	-1.85	-0.059
	면적 60㎡ 초과 85㎡ 이하 (ref. 면적 85㎡ 초과)			-0.705	-0.80	-0.673	-0.83	
	자가 (ref. 월세)			0.240	1.33	0.185	1.24	
	전세 (ref. 월세)			0.401**	2.05	0.359**	2.41	0.007
	점유 형태 변화(상향 이동)			0.310**	2.00	0.281**	2.12	0.005
세대 간 특성	동거					0.230	1.33	
	근접 거주(30분 이내)					0.216**	2.13	0.003
	근접 거주 변화 (30분 초과→이내)					0.438***	3.49	0.010
Log likelihood		-646.89415		-638.54695		-631.5141		
Wald chi2		31.07		30.59		160.53		
Prob > chi		0.0006		0.0100		0.0000		
Number of groups		4,320						
Number of observation		9,081						

주 : <.01:***, <.05:**, <.10:*

않으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임차 형태인 전세가 자가보다 출산을 더 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비용이 저렴해 서가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나 자가를 확보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 포기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이행이라 볼 수 있다(오신휘·장인수, 2021). 따라서, 주거 불안정이 높은 월세에 거주할 경우 첫 자녀 출산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첫

자녀 출산을 위해 주거 안정성이 가장 먼저 확보해 야 중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다은·서원석, 2021).

또한, 점유 형태의 모든 상향 이동은 첫 출산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점유형태를 유지하거나 하향 이동한 경우에 비해 상향 이동한 경우는 첫 출산 확률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월세 거주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

우가 가장 많으며(김태경, 2013), 전세금 마련 혹은 전세를 구할 수 없어 월세로 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최열 외, 2014) 주거 안정성이 가장 취약하다. 이러한 월세에서 거주하다가 전세 혹은 자가로 상향 이동한 경우 주거 불안정성이 개선되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전세는 자가에 비해 주거 불안정을 의미하며(이삼식, 2013), 향후 자가 마련을 위해 전세에서 거주하다가 자가로 상향 이동한 경우에도 주거안정성이 강화되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기의 점유형태가 현재의 점유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출산이 촉진되었다(이삼식, 2013).

부모가 근처에 사는 것은 첫 번째 출산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Thomas and Dommermuth, 2021). 다른 변수들이 평균으로 고정되었을 경우 부모의 거주지와 딸의 거주지가 차로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해 30분 이내인 경우가 딸의 첫 출산 확률이 0.3%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근처에 살고 있지 않다가 근처에 살게 된 경우에도 첫 출산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모와 자녀 간 거주지가 변화가 없거나 떨어진 경우에 비해 30분 이내로 가까워진 경우에 첫 출산 확률이 1% 증가한다.¹⁴⁾ 이론적으로, 성인이 된 딸이 어머니와 더 가까운 곳에 살수록, 다른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거리가 멀수록 수급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자녀가 (조)부모의 보육 지원을 기대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Pink, 2018) 출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어머니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는 전환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예상되는 돌봄 지원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사회적 압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Pink, 2018). 이러한 압력의 단호함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 강화되는데, 지리적 근접성은 빈번한 직접적인 대면 접촉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접촉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그 압력은 더욱 강화된다(Cialdini and Goldstein 2004; Rossier and Bernardi 2009; Frankel and DeWit, 1989; Lawton et al., 1994; Hank, 2007). 또한, 어머니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딸은 자신의 직업에 더 헌신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전환을 늦출 수도 있다(Pink, 2018).

부가적으로, 같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기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집에 사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육아 지원이 매우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출산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일반적으로 첫 출산 전에 먼저 교육을 마치고 독립을 이루려고 한다(Pink, 2018).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성인 딸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고 있다. 즉,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어리며 결혼은 고사하고 아직 파트너가 없기도 하고 교육 과정에 있는 것이다(Pink, 2018).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Johar et al, 2010),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는 2020년 20.1%에서 2023년 10.3%로 급감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라도 과거에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혼자녀보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추세가 늘어, 기혼자녀보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비율이 더 높다(진미정, 2021). 대개 결혼 후 양가 부모와 따로 사는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이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라도 아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1.7%에 불과하며 남편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11.6%로 훨씬 높다(한경혜·윤성은, 2004).

V. 결론

본 연구는 비용 절감 논거를 바탕으로 (조)부모의 미래 육아 지원이 성인 딸의 첫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제공이 출산 전에는 관찰할 수 없고 출산 후에만 관

14) 근접 거주와 출산 전환을 분석한 선행연구(Pink, 2018; Rutigliano, 2020)에서 설명변수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준용했으나, 양자 간의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1기에 이미 임신했거나 임신을 계획한 자녀가구 또는 그 부모가구가 손자녀 돌봄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2단계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다. 1단계는 2012년~202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프로빗 확률 효과 모형을 통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55세 이상의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손자녀 돌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근접 거주가 손자녀 돌봄 제공에 대한 기대를 근사화하여 대리할 수 있는지 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2단계는 2012년~2020년 여성가족패널조사(KLoWA)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프로빗 확률 효과 모형을 통해 가임기간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손자녀 돌봄 기대를 근사치이지 대리하는 근접 거주가 첫 출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한계 효과를 추정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아버지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실질 순자산이 많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가능성이 낮고, 고령 부모 연령은 비선형 관계를 보였다. 성인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이 낮은 반면, 근로 활동을 하거나 아이 수가 많을수록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이 높다.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근접 거주할수록, 근접 거주하면서 주 1회 이상 만날수록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어문학적으로만 볼 때 이동 거리에는 기대라는 개념이 없으나, 예상되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분석 결과, 40대에 비해 20대와 30대 여성이, 경제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비해 여유롭다고 느끼는 경우, 월세에 비해 전세가, 점유 형태가 상향 이동한 경우, 부모와 딸이 근접 거주하거나 가까워진 경우에는 첫 출산 가능성이 증가한다. 반면 주거 면적이 85㎡ 초과에 비해 60㎡ 이하는 그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적절한 주거 면적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유 형태가 상향 이동하거나 주거 안정화 과정에서 출산이 촉진되므로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리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상대적 주거 위치는 출산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가족 네트워크의 존재와 상대적 주거 위치가 성인 자녀와 고령 부

모 간의 돌봄 지원, 임신·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패널 자료와 패널 모형을 이용했음에도 확률효과 모형의 가정에 따라 내생성을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수준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내생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딸과 그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딸과 시부모와의 관계 내지는 아들과 (시)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가족 관계를 폭넓게 고려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함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수준, 학생 여부, 혼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미한 연구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부모와 자녀 간 거주 거리에 관해 30분 단위의 이동 시간으로 측정·조사하고 있어, 분석자료의 특성상 20분 내지는 40분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많은 선행 연구가 여성(딸)과 어머니 간의 이동 거리를 통해 예상되는 육아 지원의 근사치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Hank and Kreyenfeld, 2003; Pink, 2018; Rutigliano, 2020), 미래 손자녀 돌봄의 가용성에 대한 조부모의 진술 내지는 관련 조사 항목이 분석자료의 특성상 존재하지 않아 직접 활용하지 않았기에, 지리적 근접성은 예상되는 육아 지원의 기대 형성의 일부일 수 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의 시대 맥락에서, 많은 서구 국가가 사회 복지에서 가족의 역할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Pavolini and Ranci, 2008), 인구통계학적 결과와 다양한 생애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의 주거지 선택, 그에 따른 주거지 변화의 상호 관계, 즉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이동과 관련된 맥락을 연구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참고문헌 Ⅱ

1. 김규성·황영은·박진우, 2005, 패널조사에서 가중치 부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

- 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한국인구학회: 67~95
3. 김태경, 2013, “임대인 (賃貸人) 과 임차인 (賃借人) 의 입장에서 본 전·월세 선호 원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5(3), 경기연구원: 135~152
 4. 김현식, 2012,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보건·복지 Issue&Focus* 1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5.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 한국인구학회: 51~78
 6. 송유진, 2014,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339~347
 7. 오신휘·장인수, 2021,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향 :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8~317
 8. 이다은·서원석, 2021,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22(1), 서울연구원: 1~15
 9. 이삼식, 2013,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1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10. 이상림·이지혜, 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임병인·강성호, 2022, “무상보육정책의 동거 조부모의 돌봄 노동 시간과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40(1), 한국경제연구학회: 5~33
 12. 진미정, 2021,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62~71
 13.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최열·김상현·이재송, 2014, “로짓모형을 이용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능력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59, 한국부동산학회: 45~58
 15. 한경혜·윤성은, 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제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한국인구학회: 177~204
 16. Aassve, A., Arpino, B., and Goisis, A., 2012a, “Grandparenting and mothers’ labour force participation: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Demographic Research* 27,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53~84
 17. Aassve, A., Meroni, E., and Pronzato, C., 2012b, “Grandparenting and Childbearing in the Extended Famil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8(4), Springer: 499~518
 18. Alt, C., and Teubner, M., 2006, “Private Betreuungsverhältnisse: Familien und ihre Helfer”, in *Wer betreut Deutschlands Kinder?*, edited by Bien, W., Rauschenbach, T., and Riedel, B., Beltz: 173~186
 19. Arpino, B., Pronzato, C. D., and Tavares, L. P., 2014, “The effect of grandparental support on mother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4), Springer: 369~390
 20. Bass, S. A., and Caro, F. G., 1996, “The economic value of grandparent assistance”, *Generations :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20(1), American Society on Aging: 29~33
 21. Becker, G. S., 1981,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48(189), Wiley: 1~15
 22. Belsky, J., and Rovine, M., 1984, “Social-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455~462
 23. Benard, S., and Correll, S. J., 2010, “Normative discrimination and the motherhood penalty”, *Gender & Society* 24(5), Sage: 616~646
 24. Brandon, P., 2000, “An Analysis of Kin-Provided Child Care in the Context of Intrafamily Exchanges: Linking Components of Family Support for Parents Raising Young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9(2), Wiley: 191~216
 25. Choi, H., Schoeni, R. F., Wiemers, E. E., Hotz, V. J., and Seltzer, J. A., 2020, “Spatial distance

-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2), Wiley: 822~840
26. Cialdini, R. B., and Goldstein, N. J., 2004,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1), Annual Reviews: 591~621
 27. Coall, D. A., and Hertwig, R., 2010, “Grandparental investment: Past, present, and futur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1), Cambridge University: 1~19
 28. Coall, D. A., and Hertwig, R., 2011, “Grandparental Investment: A Relic of the Past or a Resource for the Fut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2), Sage: 93~98
 29. Compton, J., and Pollak, R. A., 2014, “Family proximity, childcare, and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Journal of Urban Economics* 79, Elsevier: 72~90
 30. Del Boca,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Springer: 549~573
 31. Easterlin, R., Pollak, R., and Wachter, M. L., 1980, “Toward a more general economic model of fertility determination: Endogenous preferences and natural fertility”, In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Easterlin, 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1~150
 32. Fawcett, J. T., 1988,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 Family Review* 12(3-4), Taylor & Francis: 11~34
 33. Fergusson, E., Maughan, B., and Golding, J., 2008, “Which children receive grandparental care and what effect does it ha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2), The Associa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61~169
 34. Frankel, B. G., and DeWit, D. J., 1989, “Geographic distance and intergenerational contact: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Aging Studies* 3(2), Elsevier: 139~162
 35. Fuller-Thomson, E., and Minkler, M., 2001,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2), Oxford University Press: 201~209
 36. Gauthier, A. H., 2002,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s there convergence?”, *Population* 57(3), Institut National d'Etudes Démographiques: 447~474
 37. Gray, A., 2005, “The changing availability of grandparents as carers and its implications for childcare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4(4), Cambridge University Press: 557~577
 38. Grundy, E., and Shelton, N., 2001, “Contact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Great Britain 1986-99”,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33(4), Sage: 685~697
 39.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Wiley: 157~173
 40. Hank, K., and Buber, I., 2009,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Findings from the 2004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 30(1), Sage: 53~73
 41. Hank, K., and Kreyenfeld, M., 2003,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and women’s fertility decisions in Wester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Wiley: 584~596
 42. Hank, K., Kreyenfeld, M., and Spieß, C. K., 2004, “Kinderbetreuung und fertilität in deutschland/ child care and fertility in Germany”, *Zeitschrift für Soziologie* 33(3), De Gruyter: 228~244
 43. Hayslip Jr, B., and Kaminski, P. L., 2005,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The Gerontologist* 45(2), Oxford University Press: 262~269
 44. Herlofson, K., and Hagestad, G. O., 2012, “Transformations in the role of grandparents across welfare states”, In *Contemporary*

- Grandparenting*, edited by Arber, S., and Timonen, V., Policy Press: 27~50
45. Heylen, L., Mortelmans, D., Hermans, M., and Boudiny, K., 2012, "The intermediate effect of geographic proximity on intergenerational support: A comparison of France and Bulgaria", *Demographic Research* 27,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455~486
 46. Jappens, M., and Van Bavel, J., 2012, "Regional family norms and child care by grandparents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27,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85~120
 47. Johar, M., Maruyama, S., and Nakamura, S., 2010, *Transition to Parent-Child Coresidence: Parental Needs and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Research Paper, UNSW Australian School of Business
 48. Kahn, J. R., McGill, B. S., and Bianchi, S. M., 2011, "Help to family and friend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at older ag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1), Wiley: 77~92
 49. Kalmijn, M., de Leeuw, S. G., Hornstra, M., Ivanova, K., van Gaalen, R., and van Houdt, K., 2019, "Family complexity into adulthood: The central role of mothers in shaping intergenerational 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5), Sage: 876~904
 50. Kaptijn, R., Thomese, F., Liefbroer, A. C., and Silverstein, M., 2013, "Testing evolutionary theories of discriminative grandparental investment",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45(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9~310
 51. Keim, S., Klärner, A., and Bernardi, L., 2013, "Tie strength and family formation: Which personal relationships are influential?", *Personal Relationships* 20(3), Wiley: 462~478
 52. Knijn, T. C., and Liefbroer, A. C., 2006, "More kin than kind: Instrumental support in families", In *Family Solidarity in the Netherlands*, edited by Dykstra, P. A., Kalmijn, M., Knijn, T. C. M., Komter, A., Liefbroer, A. C., Mulder, C. H., Dutch University Press: 89~105
 53. Kolk, M., 2014, "Understanding transmission of fertility across multiple generations - Socialization or socioeconomic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5, Elsevier: 89~103
 54. Ku, L. J. E., Stearns, S. C., Van Houtven, C. H., and Holmes, G. M., 2012, "The health effects of caregiving by grandparents in Taiwan: An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0, Springer: 521~540
 55. Kügler, K., 2007, "Großeltern als Betreuungspersonen Eine wichtige Säule für die Eltern in der Kinderbetreuung", In *Wer betreut Deutschlands Kinder? DJI- Kinderbetreuungsstudie*, edited by Bien, W., Rauschenbach, T., and Riedel B., Cornelsen Scriptor: 173~186
 56. Kulu, H., and Vikat, A., 2007, "Fertility differences by housing type: The effect of housing conditions or of selective moves?", *Demographic Research* 17,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775~802
 57. Lawton, L., Silverstein, M., and Bengtson, V., 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National Council in Family Relations: 57~68
 58. Liefbroer, A. C., 2005, "The impact of perceived costs and rewards of childbearing on entry into parenthood: Evidence from a panel stud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1(4), Springer Nature: 367~391
 59. Lutz, W., Skirbekk, V., and Testa, M. R.,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of th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167~192
 60. Margolis, R., and Myrskylä, M., 2015, "Parental well-being surrounding first birth as a determinant of further parity progression",

- Demography* 52(4), Duke University Press: 1147~1166
61. Mathews, P., and Sear, R., 2013, "Does the kin orientation of a British woman's social network influence her entry into motherhood?", *Demographic Research* 28,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313~340
62. Morgan, S. P., and Hirosima, K., 1983, "The persistence of extended family residence in Japan: Anachronism or alternative strate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69~281
63. Newman, L., 2008, "How parenthood experiences influence desire for more children in Australia: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5, Springer: 1~27
64. Pavolini, E., and Ranci, C., 2008,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reforms in long-term car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8(3), Sage: 246~259
65. Pebley, A. R., and Rudkin, L. L., 1999,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What do we know?", *Journal of Family Issues* 20(2), Sage: 218~242
66. Phibbs, C. S., and Luft, H. S., 1995, "Correlation of travel time on roads versus straight line distance",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52(4), Sage: 532~542
67. Pink, S., 2018, "Anticipated (grand-) parental childcare support and the decision to become a parent",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4(5), Springer: 691~720
68. Rindfuss, R. R., Guilkey, D., Morgan, S. P., Kravdal, Ø., and Guzzo, K. B., 2007,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irst-birth timing in Norway", *Demography* 44(2), Duke University Press: 345~372
69. Rossier, C., and Bernardi, L., 2009, "Social Interaction Effects on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 Springer: 467~485
70. Rutigliano, R., 2020, "Counting on potential grandparents? Adult children's entry into parenthood across European countries", *Demography* 57(4), Duke University Press: 1393~1414
71. Sear, R., and Coall, D., 2011, "How much does family matter? Cooperative breeding and the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s1), Wiley: 81~112
72. Silverstein, M., and Giarrusso, R., 2010, "Aging and family lif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Wiley: 1039~1058
73. Silverstein, M., Giarrusso, R., and Bengtson, V. L., 2003,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family systems", In *Global Aging and Challenges to Families*, edited by Bengtson, V., Routledge: 75~102
74. Ström, S., 2010, "Housing and first births in Sweden, 1972-2005", *Housing Studies* 25(4), Taylor & Francis: 509~526
75. Suitor, J. J., and Pillemer, K., 2007, "Mothers' favoritism in later life: The role of children's birth order", *Research on Aging* 29(1), Sage: 32~55
76. Swartz, T. T., 2009,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adulthood: Patterns, vari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1), Annual Reviews: 191~212
77. Tanskanen, A. O., and Rotkirch, A., 2014, "The impact of grandparental investment on mothers' fertility intentio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Demographic Research* 31,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1~26
78. Thomas, M. J., and Dommermuth, L., 2021, "Interrelationships among fertility, internal migration, and proximity to nonresident family: A multilevel multiprocess analysis", *Demography* 58(5), Duke University Press: 1817~1841
79. Thomese, F., and Liefbroer, A. C., 2013, "Child care and child births: The role of grandparent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rriage and*

- Family* 75(2), Wiley: 403~421
80. Van Bavel, J., and De Winter, T., 2013, “Becoming a grandparent and early retirement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6), Oxford University Press: 1295~1308
81. Vandell, D. L., McCartney, K., Owen, M. T., Booth, C., and Clarke-Stewart, A., 2003, “Variations in child care by grandparent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Wiley: 375~381
82. Waynforth, D., 2012, “Grandparental investment and reproductive decisions in the longitudinal 1970 British cohort stud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9(1731), The Royal Society: 1155~1160
83. Wheelock, J., and Jones, K., 2002, “‘Grandparents are the next best thing’: informal childcare for working parents in urban Britain”, *Journal of Social Policy* 3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441~463
84.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1>, 통계청 지표 누리, 합계출산율(2024년 12월 검색)
85. www.keis.or.kr,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86.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년도, 2023년도)
87.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
- 논문 접수일 : 2025. 1. 10
 - 1차 수정일 : 2025. 3. 4
 - 게재 확정일 : 2025. 3. 21